

고흥 녹동항 부잔교 사전제작 '말똥'

조달 계약도 하기전 업체서 미리 제작 유착 의혹속 서귀포 카페리 취항 지연

고흥 녹동항과 제주 서귀포를 운항할 쾌속카페리 접안시설인 부잔교(浮棧橋)가 사전제작돼 말똥이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녹동~서귀포간 쾌속카페리 운항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27억여원의 사업비로 접안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모 업체

가 부잔교를 사전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부잔교는 부두에 상자 모양의 부체(浮體)를 띄운 뒤 수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부잔교는 설계가가 7억4000만원이며 납품가는 6억2000만원으로, 을

초 용역업체로 전국 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여수소재 모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지난 30일 납품 기간으로 지난 3월 30일 조달청계약을 의뢰했다. 이후 조달청은 뒤늦은 지난 5월 16일과 23일 등 2차례에 걸쳐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2개월 이상 계약을 지연시키다가 지난 4월에야 계약을 완료했다. 당초 군 계획은 여수 엑스포 등에 맞춰 이달중 녹동~서귀포간 쾌속카페리를 취항시킨다는 목표였고, 제작업체 측도 조달청의 계약일정이 늦어

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관행상 사전 제작에 들어간것이 문제가 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야 사전 제작된 것을 알았다"면서 "사전제작된 부잔교는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제작업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작업체 관계자는 "부잔교 사전 제작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작을 다시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녹동~서귀포간 쾌속카페리 취항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주국경기자 gjju@



“바다사랑 마음 키우러 왔어요”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들이 지난 7일 광양시 중동 해양경찰 광양 방제비축기지를 방문해 여수해경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광양 방제비축기지는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방제물자 사전 확보를 목적으로 2009년 35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연기는 놀이다’ 25일부터 별량서 연기캠프

전남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최수중)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별량군 별량면 개령이 마을에서 전남 연기캠프 ‘연기는 놀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연기캠프는 현장 캠프에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지도할 예정으로 연기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는 도내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 기간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참가신청 희망은 전남 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n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3일까지 이메일(namdo38@empal.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744-2271)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일기자 jji@

전남 꿀벌농가 ‘美 부저병’ 공포

구례·곡성 등 감염...애벌레 2만~3만 마리 폐사

전남지역에 꿀벌의 유충을 폐사시키는 미국 부저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충봉아부패병으로 전남 꿀벌 98%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부저병마저 확산돼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최근 구례·곡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부저병이 퍼져 182군(群·1군 벌통 4~7개, 꿀벌 2만~3만 마리)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군 전염병인 부저병은 꿀벌의 애벌레나 번데기를 썩게 하며 환봉, 양봉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난달 26일 ‘토종벌 미국 부저병 발생주의

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322군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56%인 182군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남충봉아부패병에 따른 전남 농가 피해율은 무려 98%. 2009년 강원도에서 발병사태가 첫 확인된 후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때 9만1000군에 달했던 전남지역 토종벌은 현재 1800군만 남았다. 피해액도 231억원에 이른다. 목포와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하고는 죄다 피해를 봤고, 지난해까지 청정지대였던 강진도 을 들어 남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이 동시에 발견되면서 토종벌 멸종위기에 처할지 우려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늘·땅·바다...스포츠 다 모인다

14~15일 보성 울포서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

하늘과 바다,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레저 스포츠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4~15일 보성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9일 “육상과 수상·항공 레저 스포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스포츠 축제 ‘2012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보성 울포솔밭 해변 등 보성군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서바이벌, 캠프 등 3종목의 레저 스포츠대회와 발매, 초경량 비행기, 카약, 열기구, 호버크래프트, 스킨스쿠버 등 18종의 레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전통놀이 및 레저 스포츠 시범공연, 문화공연, 레저용품 전시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체험비 1만원으로 레저 스포츠 20여 종목을 체험할 수 있고 보성의 유료시설인 울포해수욕장, 한

국차박물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 홈페이지(www.kl-sf.kr)에서 접수 중이다. 레저 체험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14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정인화 관광문화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이 레저 스포츠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 북

“제기차기 달인 모십니다”

28일 남원서 전국대회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 제기차기 대회’가 오는 28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전통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통놀이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기차기를 생활스포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7일까지 남원시 및 관광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종목은 개인전, 가족경기, 커플경기 3종목이며 경기방식은 외발 차기, 양발 차기, 한발 들고 차기 등이다. 경기결과 종목별 1~3등까지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문의(063-620-6181)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전북농협 ‘다문화 가족 부부교실’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 40쌍(126명)을 초청해 부부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부부교실은 칭찬아카데미 최병무 원장의 ‘다문화 가족 행복 지름길’ 강연과 군장대 김원규 박사의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과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강중수 전북지역본부장은 “다문

화가정은 농촌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정착 프로그램으로 1대 1 맞춤형 영농교육과 다문화 여성대학 개강, 진점염마 땀어주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국방문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책 읽는 학교 권장합니다”

도교육청 771개 초·중·고·특수학교 도서관 설치 완료

전북 도내 771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420곳, 중학교 208곳, 고등학교 132곳, 특수학교 11곳 등 전체 771개교 모두 학교 도서관을 갖추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도서관이 없던 27개교에 대한 도서관 설치 사업을 올해 완료했다. 또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학

교 도서관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총 1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학교당 1000만~3000만원, 기본 장서구입에 학교당 100만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에는 학교당 240만원 지원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적극 투자하는 학교에만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 설치가 완료된 만큼 학

생들의 교수-학습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2년간 추진할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독서교육 내실화’를 꼽고, ▲학생 1인당 장서수 연차적 확충 ▲학교 도서관 운영인력 점진적 확충 ▲독서 토론수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하반기부터 확대

전북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확대한다. 이달에 익산시가, 8월 이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종량제를 시행한다.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종량제

에 참여한다. 전자태그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전자과외표가 부착된 수거용기에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수거차량에서 무게를 재어 중앙시스템으로 전송,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단풍미인 쌀’ 브랜드 심사서 ‘특’

정읍을 대표하는 브랜드쌀인 ‘단풍미인 쌀’이 농협중앙회 주관의 전국 미곡처리장 브랜드쌀 심사에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인 ‘특A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협 RPB 브랜드 쌀 155개를 대상으로 품종·단백질 함량·품위·피해립 등 11

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풍미인 쌀’이 고소속 소비층에 고품질 쌀로 각인돼야만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읍시·농협·농가가 협심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9월까지 특별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전북 출신으로 근대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문인들의 서화작품 20여 점 100여 폭을 모아 특별전시를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다. ‘근대서화 100년’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기획전시는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까지 활발

히 활동했던 전라북도 출신 작가 17명의 서화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내용은 사군각, 문자향, 금강산, 서경기, 산수도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효산 이광열·염제 송태희 등의 다양한 서화를 감상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남원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남원시가 ‘전북도 거시기장터’(JBplaza)에서 판매되는 지역 생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건당 인터넷 택배비 2000원을 정액 지원, 효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전북도 거시기장터’에는 ‘남원참미’를 비롯한 13개 업체

가 입점하고 있다. 남원시는 ‘거시기장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페이지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100년만에 핀 연꽃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에 위치한 무장현 관어(시적 제346호)앞 연못에 100년만에 연꽃이 피어 화제다. 고창군은 지난 2009년 무장읍성내 연지터를 발굴해 기존 무장중등학교 운동장 흙을 걷어내고 못의 형태도 복원했다. <고창군 제공>

전북대, 한옥 건축 교육생 모집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20일까지 한옥건축과 경량목조건축 과정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한옥건축 60명(초급 30명·전문가 30명)과 경량목조 건축 60명(초급 30명·전문가 30명) 등 총 120명이다. 교육기간은 초급과정은 총 5개월

(700시간), 전문과정은 총 4개월(560시간)이며, 교육은 70% 이상이 실습으로 진행된다. 지원 서류는 고창캠퍼스와 전주캠퍼스 공대에서 접수하며, 23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063-561-5206)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